# 圖協 五年의 발자취 (下)

嚴 大 燮

<1957年>

1957年은 圖協이 創立된지 三年을 맞이하는 해다. 六·二五事變後 圖書館의 相互 連絡과 圖書館人의 意見交換의 길조차 杜絶되고 있던 館界가 그間 圖協을 中心으로 마음 團結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館界를 建設하겠다는 慾望이 날로 높아갔고, 協會의 任員과 委員 諸位께서도 보다 積極的인 協力과 關心을 가지게 되었다. 事務局에서는 鎭海 海士 圖書館長 崔震武氏의 格別하신 好意로 同館 在職中이던 金京一氏(現在 京畿高校 司書敎師)를 事務局 職員으로 맞이하였고 給仕를 처음으로 採用하여 協會事務를 順當할 수 있는 事務陣容을 갖추게 되었다. 이해의 事業 몇가지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 出版事業

韓國圖書館 規程集을 發刊하여 全國 圖書館및 關係要路에 配付하였고, 圖協月報를 푸린트版으로 同年7月 創刊號부터 6號까지 每月 1回 600部式 發行하여 全國 圖書館및 關係機關에 配付하였다.

### 圖書館 國際會議에 圖協代表 派遣

同年 11月4日부터 日本 東京에서 開催된 印度 太平洋地區에 있어서의 國際出版物交換에 關한 硏究會 및 亞細亞圖書館協會 聯合會 創立總會에 李鳳順 金元圭 兩

### 實務講習會

圖協主催로 每年 實施해 오는 圖書館實務講習會는 12月16日부터~21日까지 國立圖書館에서 開催되었는데 受講人員은 69名에 達하였다.

### 全國 圖書館 實態調査

當年 實施한 第三回 全國 圖書館實態調査는 보다 具體的인 實態把握에 努力하였으나 一部 圖書館에서 實態公開를 주저하는 關係로 相當한 苦衷이 있었다.

### 讀書週間

讀書週間을 圖書館事業의 認識 및 發展運動으로 展開하는 圖協의 政策이 奏効하여 1957年부터의 讀書週間은 우리나라 圖書館運動의 所期 成果를 걷우게 되었다. 特히 言論界에서 積極的으로 協助한바 있다.

### 分科委員會 活動

이해 圖協이 注力한 分科委員會 事業活動은 分類分科委員會가 數多한 宿題와 會議를 거쳐 標準分類法 千區分 草案을 作成하여 館界의 意見을 얻기로 한바 있고, 編目委員會는 標準編目法 草案이 相當히 進行되었으며 法制委員會가 9回의 會議를 거쳐 圖書館法 草案 修正案을 作成하였고, 出版委員會는 3回의 會議를 거쳐 機關誌

× ×

同年末 現在의 會員數는 特別會員 77個 圖書館(前年보다 8個 增加) 普通會員은 月報 發行을 契機로 처음 募集하였던바, 118名이 加入하였다. 財政은 會費收入 134萬6千5百圓, 國庫補助金이 150萬圓, 合計 28萬6千5百圓으로 前年에 比해서 큰 飛躍을 하였다.

特히 國庫補助金의 獲得은 圖協의 發展上 主要한 要件이 되었는데, 이의 獲得에는 많은 苦衷이 있었다. 當時의 文敎部 社會敎育課 林基善事務官 (現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在職) 의 숨은 功이 컷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이해에도 圖書館法의 建議推進을 비롯하여 協會 事務量이 大幅으로 增加하였다.

## <1958年>

### 出版物國際交換센터 圖協에 設置

世界 各國에 出版物國際交換센터가 設置되고 있어, 國際間 文化交流에 貢獻하는데 우리나라는 센터가 없으므로 이의 實現을 渴望하여 오던中 이해 9月2日 유네스코本部로부터 센터를 圖協이 主動이 되어 設置해 달라는 勸奬과 아울러 600弗의 財政援助를 보내왔다. 圖協에서는 9月5日 理事會를 열고 對策을 講究한 結果 韓國의 實情으로는 當場에 外國과 같이 政府豫算으로 運營할 事情이 못되므로 不得已 圖協이 臨時로 센터의 初步的인 業務를 擔當하여, 交換센터一事業의 重要性과 必要性을 政府와 社會에 宣傳하여 完全한 國家的인 交換센터一를 促求하고, 이것이 實現되면 그 機構에 센터一業務를 引繼하기로 決議하였다. 9月22日에는 蔡官錫 具泰會 申鉉經 金元圭 各 理事와 本人이 文敎部를 訪問하여 센터一事業을 說明하고 對策을 建議하였다. 12月29日 유네스코韓國委員會로부터 交換關係事務를 正式으로 引受하고 關係國에 通知를 發하였는데 이로서 出版物國際交換韓國센터一는 圖協內에 設置되었던 것이다.

### 圖書館法 制定 促進

圖書館法에 對하여는 圖協 發足以來 여러번 法草案을 作成하여 早速히 制定토록 文敎部 當局과 國會要路에 建議 陳情하는 한便 社會 各方面에 圖書館法 制定의 認識運動을 展開하였든바 이해에는 많은 進展을 보게 되었다. 3月3日 圖協 行政分科委員會에서 圖書館法 推進을 決議하고 過去의 草案等을 土台로 法草案 修正案 起草에 着手하여 7月7日 行政分科委員會와 7月11日 理事會에서 審議 成案하였다. 9月19日 法 推進委員會를 召集하고 前記 草案을 關係當局에 提出하기 前에 文敎部當局과 國會 當路者를 招請하여 懇談會를 가지기로 可決, 9月23日 市內 雅叙園에서 國會側:安龍伯文敎分委長 李宣敎專門委員 鄭永謨幹事 圖協側: 金相殉會長 具泰會理事 申鉉經理事 本人 以上 7名이 會同하여 圖書館法制定에 對한 意見交換을 하였다. 11月1日 民議院議長과 文敎部長官에게 正式으로 圖書館法 制定을 請願하였는데 同12日 國會 事務總長으로부터 圖書館法 請願件을 文敎委員會에 回附 審議케 하였다는 通知가 있었다. 同16日 國會 文敎委員會에서 圖協이 請願한 件을 審議한 結果 文敎委員 全員이 捺印하여 閔肚植議員 名義로 正式 提出할 것을 可決 同20日 提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國會 會期인 12月 31日까지에 24波動等 事情으로 圖書館法案이 討議되지 못하여 節次上 一段 廢

楽되었다.

## 讀書週間

讀書週間 行事는 每年 實施해 왔지만 이해에도 文敎部와 共同主催로 10月 20日부터 同26日까지 一大 國民運動을 이르켰다. 特히 文敎部에서 포스타 5,000枚, 傳單 30,000枚를 製作해 주었고 이를 全國 800餘機關에 配付하였다. 讀書週間中 그 重要成果는 다음과 같다.

1958年度 讀書週間 全國統計

| | | |
|---|---|---|
| 新聞 社說 記事 | | 200餘件 |
| 라디오放送 | | 20餘回 |
| 圖書館 無料公開(學校包含)311館 | | |
| 讀書週間中 閱覽者 | 男 | 137,186名 |
| | 女 | 51,943名 |
| | 計 | 189,129名 |
| 座談會 | | 640回 |
| 讀書講演會 | | 734回 |
| 參加人員 | | 206,587名 |
| 圖書展示會 | | 248回 |
| 포스터揭示 | | 32,221枚 |
| 標語揭示 | | 47,308枚 |

## 出版業務

協會 財政狀態의 緊迫으로 이해에 出版事業은 微微한 것이었다.

| | | | |
|---|---|---|---|
| 機關紙 | 1,2月號 | 46倍版 | 54面 |
| | 3,4月號 | 〃 | 41 |
| | 5,6月號 | 〃 | 56 |
| | 7,8月號 | 〃 | 72 |

## 圖書館用語 制定業務

圖書館學 및 圖書館活動의 基本資料가 되는 用語制定은 數年來의 宿題로 되어있는데 技術分委에서는 于先"ALA Glossary of Lidrary terms" 間宮 圖書館大辭典을 分擔 飜譯하여 이것을 用語制定의 基礎資料를 삼기로 決議하였고 1958年中에 21回의 會合을 거쳐 大體로 輪廓이 定해졌다.

## 分科委員會

元來 圖協에는 分類, 編目, 術語, 出版 建築用品, 敎育, 文獻行政, 法制의 8個分科委員會가 있어 그中 分類 編目 法制 等 數個 分委는 相當한 努力을 傾注하여 所管業務를 硏究 檢討하였으나 所期의 成果를 걷우지 못하였으므로 이해 3月15日 理事會에서 分科委員會를 技術 行政 二分科委員會로 改編하여 技術分科委員長에 李鳳順, 行政分科委員長에 具泰會 兩 理事가 選任되었다. 두 分委에서는 이해에 重点事業으로서 用語制定과 圖書館法修正案作成에 注力하였다.

## 調査業務

全國 圖書館에서 保有하고 있는 圖書館參考資料目錄을 調査完了했으나, 財政關係로 出版하지 못하였다. 特히 58年에는 全國의 中高等學校圖書館 實態調査를 文敎部와 共同 調査하여 貴重한 資料를 얻었다.

× ×

同年末 現在의 會員數는 特別會員 98個 圖書館 普通會員이 189名이었다. 財政事項은 會費收入 110萬3千5百圜, 補助金收入이 90萬圜이었다. 當初 150萬圜으로 決定된 補助金이 政府形便으로 60萬圜 減額된 關係로 愛之重之해오던 基金을 使用하고도 60萬圜의 負債를 남기게 되었다.

1958年에 特記할만한 것은 第四回 定期總會를 期하여 20年以上 圖書館에 勤續하여 우리나라 圖書館事業의 育成과 發展에

貢獻이 많은 功勞者를 文敎部長官이 다음과 같이 表彰한 것이다.

張之兌(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滿 31年 6個月 勤務

朴興培(交通圖書館) 滿31年5個月 勤務

李宣英(國立圖書館) 滿27年1個月 勤務

盧基顯(休養中) 滿24年4個月 勤務

朴熙永(仁荷工科大學) 滿20年6個月 勤務

(受賞者에게는 表彰狀과 副賞으로 時計 一個式이 授與됨)

事務局에서는 金京一幹事가 圖協에 많은 功을 남기고 京畿高校司書敎諭로 轉任하고 海軍敎材廠 圖書館長으로 있던 金錫淳幹事를 맞이하였다.

## <1959年>

### 圖書館法 推進

圖書館法에 對하여서는 92年度 總會에서 보다 充實한 法을 制定토록 하기 爲하여 「圖書館法 審議會」를 構成하고 白鐵氏를 議長으로하여 5次의 會合을 가졌고 여기서 決定된 案을 文敎部 및 國會에 立法資料로 提出하였다.

한편 社會的으로도 圖書館法에 對한 認識이 높아졌으며 特히 言論界에서 積極的인 後援이 있었다. 6月2日 韓國日報社主催로 市內 國際그릴에서 圖書館法 座談會를 가졌는데 여기에 金敬洙(成均館大學校 圖書館長), 具泰會(鍾路圖書館長), 閔肚植(民議員), 申在永(大韓出版文化協會長), 元興均(京東中高等學校長), 李恒寧(國會文敎專門委員) 諸氏와 本人이 參席하였다. 10月 23日에는 民議院議長 및 議員全員에게 다음과 같은 請願書를 보냈다.

圖書館法에 對한 請願의 말씀

國事에 汨沒하시는 貴下께 삼가 敬意를 表하나이다. 現代國家에 있어서 圖書館의 存在는 國民의 共同書齋로서 必須不可缺한 施設입니다. 따라서 國家마다 圖書館法을 制定하여 圖書館의 育成과 發展을 國法으로 保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기 對한 何等의 立法措置가 없어서 圖書館事業이 解放前보다 萎縮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願하옵건대 圖書館은 國民누구나가 希望하는 圖書를 國民누구나가 사볼수 있는 富國에 있어서보다 個人의 經濟力으로는 雜誌 한卷 新聞 한部를 사보기 어려운 나라에서 더욱 必要한 點에 留意하시와 圖書館法을 早速히 制定하여 주시옵기 懇願하나이다.

追記

本協會에서는 圖書館法 私案을 作成하여 每年 國會議長님께 請願드린바 있사옵고 現在 民議員名義로 提出된 圖書館法案이 國會 文敎委員會에 回附되고 있읍니다.

### 圖書配付函 業務

政府機關 公共機關 其他 一般機關및 團體에서 發行하는 各種 刊行物은 圖書館의 重要한 基本資料임에도 不拘하고, 送料包裝等의 事情으로 大多數 圖書館에서 이들 貴重한 資料를 寄贈받지 못하는 實情에 비추어, 圖協에서는 全國 圖書館의 要望으로 政府機關을 비롯한 約 800個의 機關에 刊行物을 圖書館에 優先 配付하도록 5月12日 다음과 같이 請願書 또는 依賴文을 보냈다.

政府機關 部處長에게 보낸 請願書

請願書

政府公共機關 刊行物 圖書館 優先配付

에 關한件

政府 公共機關에서 刊行되고 있는 定刊 非定刊의 各種 出版物은 모든 圖書館에서 備置하기를 願하고 있는 貴重한 基本 圖書館資料입니다. 그런데 이들 出版物은 主로 非賣品인 關係로 寄贈方法 以外에는 求得할 수 없는 實情입니다. 現在의 事情은 逆料 刊行部數等 事情으로 中央地의 몇個 圖書館을 除한 大多數 圖書館이 配付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請願하고저 하는 要件

貴管下 機關에서 刊行하는 出版物을 全國 重要圖書館에 優先的으로 配付하여 주실 것.

配付方法

貴機關에서 直接 發送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本協會가 一括引受하여 各圖書館에 配付토록 하실 것.

全國 圖書館一覽表를 添付하여 以上請願하오니 善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出版物 國際交換 業務

圖協內에 設置된 「出版物國際交換 韓國센터」는 1月5日 業務를 開始하였고 年末現在 外國에서 보내온 圖書 10207冊를 通關 配付하였다.

## 實務講習會

59年度에는 11月 17日부터 同 26日까지 10日間에 걸쳐 文敎部와 圖協 共同主催로 講習會를 開催하였는데 全國 圖書館 現職者 86名이 受講하였다.

講師로는 李鳳順, 閔泳珪, R. S. 버제스, J. M. 엘로드, 朴熙永, 白麟, 李載喆, 李鍾文, 任鍾淳, 劉永玹, 張一世 諸氏와 本人이 擔當하였다. 이번에는 比較的 敎材를 豊富히 準備했는데 敎材內容은

| | |
|---|---|
| 圖書館管理法 | 14面 |
| 東書編目및 分類 | 6 |
| 東書目錄法 | 89 |
| 西書目錄法 | 138 |
| 參考業務 | 12 |
| 分類細目에 對한 小論 | 25 |
| 圖書選擇 | 25 |
| 計 | 382 |

## 讀書週間

讀書週間行事는 世界的인 行事로서 各國에서 實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特히 圖書館認識 및 發展에 注力하여 이 行事를 圖協이 主動이 되어 文敎部와 共同主催로 10月20日부터 同 26日까지 全國에 걸쳐 週間行事를 實施하였는데 今年度에 從前에 比해 가장 큰 成功을 걷우었다. 特히 文敎部에서 포스타 5,000枚, 標語 40,000枚를 製作해 주어서 全國 600餘個處에 配付하였다.

## 用語集 發行

數年來 宿題로 되어오든 「圖書館用語集」을 發行한 것은 59年度의 큰 收穫이라 할 것이다. 239面으로 된 이 用語集은 全國圖書館 및 會員에게 配付되었다.

## 圖協表彰

1959年 1月26日附 文敎部長官으로부터 圖協이 表彰狀을 받은바 있다. 總會當日 文敎部次長이 出席하여 表彰狀을 授與하였다.

× ×

同年末 現在의 會員數는 特別會員 132館, 普通會員 191名이였고 財政은 會費收入 211萬9千圜, 補助金 150萬圜으로 今年

히 面目을 새우게 되었다.

이해에는 會長更迭이 세번 있었다. 即 1月 總會에서 國立圖書館長 朴萬圭氏가 會長에 當選되었다가 文敎部로 轉出하시고 고 後任으로 오신 金相彌氏가 會長이 되셨다. 同年 11月 金會長이 辭任하시고 高麗大學校 圖書館長 蔡官錫氏가 會長으로 選任되었다.

事務局에서는 圖協初創期부터 受苦해주신 趙洙永氏가 農業銀行 圖書室 司書로 轉出하였다.

## 맺는 말

旣述한 바와 같이 圖協이 걸어온 5年間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歷史的인 趨勢이기는 하나 圖協創立後 一般社會의 圖書館事業에 對한 認識의 高潮는 勿論이거니와 延大 梨大의 圖書館學科 設置, 圖書館學을 修學하는 多數의 外國留學等 이땅의 圖書館界에 注目할만한 發展이 있었다. 圖協도 이 重要한 建設期에 應分의 役割을 하였고, 또한 앞으로의 發展을 爲한 하나의 跳躍臺를 마련했다는 點에서 自慰가 되는 바이다. 아무런지 組織과 機構로 보아 現下 우리나라 圖書館界에 奉仕할 수 있는 基本 要件이 거의 갖추어 진 것으로 본다.

이제부터 圖協은 그間 마련된 跳躍臺를 어떻게 活用하느냐에 發展의 關鍵이 달려 있다 할 것이다.

事務局은 「人和爲先」「寡言實踐」「時間善用」을 勤務信條로 하여 맡은 바 任務를 다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本人 個人的으로는 距今 10年前 圖書館界에 投身하여 地方 公共圖書館에 從事하다가 1955年 圖協 創立當時부터 協會 事務局을 맡은 以後에도 如前 慶州市立圖書館長을 兼務하게 된 關係로 兩職場에 다 充實하지 못한것을 恒常 罪悚하게 生覺하고 있으나, 慶州는 事實上 名稱만의 館長이고 本人이 서울에서 活動함으로 因해서 2,800餘坪의 敷地를 獲得하여 103坪의 現代式 公共圖書館을 昨年에 竣工하게 되어 本人 元來의 所願이던 地方 公共圖書館 普及의 基地를 마련하게 됨으로 若干의 滿足을 느끼고 있는 바이다. 앞으로 館界 會員 諸位의 變함없는 指導와 鞭撻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끝으로 그間 協會 任員, 委員, 會員 諸位께서 베풀어주신 厚意를 深謝하는 바이다. (끝)

## 「會員의 소리」欄 마련

會員 여러분께서 館界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建設的 意見을 보내주시면 本誌 「會員의 소리」欄에 싣겠읍니다.

但 原稿는 400字以內로 하실것.